

2023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

개 회 사

2023. 3. 20.(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당면과제를 논의할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실무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금융교육의 중요성

금번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의
주제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입니다.

* Plan your money, plant your future!

금융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국제 금융교육 주간의 주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자에게 디지털 활용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금융범죄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층**까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 청소년에게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을 하는 금융범죄

**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비중 : 40.5%(21년 12,107건), 56.8%(22.上 8,650건)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금융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Ⅲ. 금융교육 추진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금융교육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美)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금융교육 실시
(英) 금융교육 전담기구(MAS)를 설립하여 학교 교과에 금융교육을 포함시키고 이를 의무화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의 방향성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그 목표 하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먼저, 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습관과 태도를 갖추고
자산, 신용,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활동 등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힘쓰겠습니다.

② 둘째, 금융상황에 적합한 실용적인 콘텐츠를
적시에 보급하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신종 금융범죄의 발생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금융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③ 셋째, 대면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V. 맺음말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지식 없이 현대사회를 사는 것은
나침판이나 GPS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교육은 국민을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으로 이끌어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더 나아가 사회에는 튼튼한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국민이 금융이라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